





코헴

2006년 9월호 (제89호)

· 발 행 일 / 2006. 9. 15.

· 발 행 인 / 최 용 목

· 편 집 인 / 윤 기 중

· 발 행 처 / 사회복지인 한국혈우재단

· 인 쇄 인 / 애드파워 민진식

☎137-07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26번지

TEL:3473-6100 FAX:3473-6644

e-mail: kohem@kohem.org

Home Page: http://www.kohem.org

2006 9월호

C · O · N · T · E · N · T · S

초대석/

공동연구 · 치료에 노력하겠습니다 -3
박상규 / 울산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재단 활동/

"재가복지팀 이관 · 명도소송 취하 불기" -5
혈우인 31명 정형외과 무료검진 받아 -6
재단, 혈우 어린이 위한 교육책자 발간 -6

재가복지팀 소식/

재가복지팀 9월 소식 -7

특집/

육체의 건강 만큼이나 중요한 '정신 건강' -10
최순일 / 중구정신보건센터 · 사회복지사
멘토링 프로그램이란? -13
김윤정 / 재가복지팀 사회복지사

해외 정보/

NMO 트레이닝의 영향 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 -16

혈우가족 이야기/

"아빠, 힘내세요." -19
42일 간의 꿈, 희망이 되자 -21
이승민 / 혈우인

당위(當爲)와 당의(糖衣) 사이

사전을 찾아보면 '당위(當爲)'에 대해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풀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당연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당위'인 것이 옳지 않다고 공격을 당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그러하고, 건설 노동자도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포항의 건설노동자들의 싸움도 그러합니다.

우리 혈우사회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혈우병 환자의 미래를 혈우병 환자가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그 운영의 주체가 재단의 임직원이어야 함도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네 말도 옳고, (또 다른) 네 말도 옳다'고 말한 방촌 황희의 일화가 저절로 생각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장하는 '당위'가 무조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나에게도 당연한 것도 남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당위'가 옳은 것이 되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당위'를 주장하기 위해 남을 폄하하거나,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장하는 '당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기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만 치우치면 일의 방향을 잃기 쉽고, 방향을 잃으면 자신의 행위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당의(糖衣)'가 되어 자만이라는 맹독이 자신에게 흘러들음을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토록 내가 야기고 사랑하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표지설명 : 정형외과 무료검진 행사에서 혈우병 환자의 관절 상태를 살피는 유명철 전 재단이사장〉

공동연구 · 치료에 노력하겠습니다



박 상 규
〈울산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내가 혈우환우들과 지속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7년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서 서울적십자병원에 근무할 때부터였다.

전공의 시절에 응급실 또는 병실에서 뇌출혈, 복강 내 출혈 등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혈관절증 등 혈우환우들을 접하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70~80년대 서울적십자병원 소아과는 많은 혈우환우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다.

그 이유는 혈우병 등록사업을 담당하던 중앙 혈액원이 서울적십자병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등록을 마친 환자는 녹십자에서 생산된 항혈우병인자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투여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녹십자는 1974년 일본이 기증한 항혈우병인자 생산기자재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일체를 인수 받아 항혈우병인자를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일정량을 대한적십자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항혈우병인자를 취급하는 병원이 서울적십자병원을 비롯하여 소수에 불과해 서울적십자병원은 혈우환우들에게는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 당시 소아과 과장이셨던 신미자 선생님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100명의 혈우병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1984년 발표하는 등 1980년대 후반까지는 혈우병 치료센터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적십자병원에 근무 당시(1987~1994) 나와 인연을 맺었던 환우들도 지금은 의젓한 청년 내지는 장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시 의료보험 가입비율의 증가와 혈우환우 어머니들의 노력으로 질병 중에서 처음으로 혈우병이 외래 치료 시 본인 부담이 20%가 된 후 항혈우병인자들을 여러 병원에서 취급하게 되었고, 세브란스병원에 혈우병클리닉이 개설되는 등 주위 환경이 변함에 따라 서울적십자병원을 사직하고 미국 연수를 떠난 1994년에는 일부 환자들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3년 동안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1997년부터 울산대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 당시 울산에는 혈우환우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서울과 부산 등지를 오가며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내가 울산 대학교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현재 약 30명의 환우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좀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와의 협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7월에 본원 물리치료를 재단의원에 파견하여 재활치료를 배우게 하여, 현재 혈우환우들의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성인 혈우환우들은 C형 간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울산지역에는 9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다.

2005년 7월부터 C형 간염 치료제로 Pegylated interferon이 보험급여를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C형 간염 환자 중에 중합효소연쇄반응에서 RNA가 양성인 4명의 환자를 1년간 Pegylated interferon을 1주일에 한 번씩 피하주사 하면서 ribavirin을 복용한 결과 4명 모두 RNA가 음성으로 되어 좋은 효과를 보였다.

아직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환우들도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하여 RNA가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혈우재단의원 및 전국 지정병원 등과 함께 C형 간염에 대하여 공동으로 치료,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혈우환우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아쉬운 점은 타과와의 협진의 필요성과 혈우병에 대한 최신 지견을 쉽게 자주 접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공감할 하는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혈우병연구회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동위원소 활액막 절제술, 혈우병의 정형외과적 고찰, C형 간염, 혈우병에서의 응고인자

에 대한 항체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면역관용요법, 혈장분획제제에 대하여 토론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최근 혈우병에 대한 유전자치료는 작은 동물인 생쥐뿐만 아니라 개에서는 혈우병 A, B 모두 성공하였다.

사람에서는 한 명의 혈우병 B 환자에서 유전자치료를 하여 9인자가 10%까지 올랐으나, 면역반응 때문에 한 달 후 다시 떨어져 앞으로 면역반응을 없애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지난 9월 1일 일간지들은 미 국립암연구소 로젠버그 박사팀이 사상 최초로 말기암 환자 2명을 유전자요법으로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며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의 발표를 인용해 대서특필하였다.

이는 치료를 받은 흑색종 환자 17명 가운데 2명만이 효과를 보아 이 치료법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나, 복잡한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생긴 암을 대상으로 성공한 연구 결과이므로 하나의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이상을 일으킨 혈우병 정복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혈우환우들이 지긋지긋한 주사바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혈우환우 여러분 특히 울산의 환우들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좀 더 편하고 포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타과와의 협진과 혈우병에 대한 최신 지견을 쉽게 자주 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재가복지팀 이관 · 명도소송 취하 불가”

재단, 코헬회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서 밝혀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은 코헬회가 건의한 ‘재가복지팀의 코헬회 이관, 명도 소송 중지, 코헬회 지원금 원상 회복’ 등의 요구에 대하여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코헬회가 지난 8월 22일 ‘한국코헬회 건의사항 건(코헬제 2006-53호)’ 공문을 보내온 것에 따른 것으로 재단의 회신은 지난 8월 30일 코헬회 측에 전달되었다.

코헬회는 건의를 통해 ‘혈우재단이 재가복지팀을 앞장세워 코헬가족을 회유, 선동하고 캠프를 후원한 것은 대한민국 혈우환우 단체인 한국코헬회의 분열을 조장한 행위’라며 김은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한국코헬회의 분열을 조장 선동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히며, ▲재가복지팀의 코헬회 이관, ▲코헬 사무국 명도에 대한 소송 중지, ▲코헬회 지원금을 원상회복 등의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재단은 회신을 통

해 ‘한국혈우재단은 혈우병 환우 단체를 부정하거나 분열을 조장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아래와 같은 재단의 입장을 밝혔다.

□ 재가복지팀의 코헬회 이관


코헬회는 재가복지사업이 ‘코헬회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재가복지팀의 전신인 사회복지사업실은 재단과 코헬회가 함께 한 협력사업이며, 이 사업에 앞서 체결한 ‘사회복지사 방문사업 약정서’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고, 지난 2005년 상반기에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을 위해 코헬회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재단에서 운영하게 된 것임.

□ 명도소송 건

지난 1월부터 계속된 코헬회의 시위와 재단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코헬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거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이후에도 재단에 대한 코헬회의 적대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재단의원 재배치를 통한 재단의원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소송을 취하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 코헬회 지원금 원상회복

코헬회는 재단의 지원금 중 단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코헬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따른 업무 질의에 대한 서초구청의 답변에 근거한 것으로, 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단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앞서 코헬회가 문제 제기한 청심회 여름캠프에 대한 지원도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 

혈우인 31명 정형외과 무료검진 받아


지난 8월 19일, 유명철 前 이사장 등 참여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의료진의 정형외과 무료 검진을 통해 지난 8월 19일, 모두 31명의 혈우 환우가 정형외과

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과 진료를 받았다.<사진>

이날 무료검진에는 혈우재단 전임 이사장인 경희대학교 동

서신의학병원 유명철(정형외과) 원장을 비롯하여 전성욱(정형외과) 교수, 박영실(소아과) 교수, 이상훈 선생, 윤휘옥 간호사 등 동서신의학병원 의료진 6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진료를 받은 31명의 혈우 환우는 X-레이 촬영 등을 통해 관절의 상태에 대한 검진을 받았으며, 수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에 대한 안내를 받기도 하였다. 



“이럴 땐 어떻게 하지?”

재단, 혈우 어린이 위한 교육책자 발간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은 혈우병 어린이를 위한 교육책자 “이럴 땐 어떻게 하지?” 1천권을 9월 말에 제작, 배포한다.


“이럴 땐 어떻게 하지?”는 일본 혈우병 환우회(JCPH)에서 발간한 것으로, 13cm x 15cm의 크기에 일반 동화책과 같이 두

꺼운 재질로 제작되었다.

이번 책자의 발간에는 일본 혈우병 환우회의 도움이 컸는데, 지난 5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혈우연맹 총회에서 재단 관계자를 만난 유타카 니시나(仁科豊) 일본 혈우병 환우회 회장은 재단 관계자의 한글판 출판 제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하며 ‘한글판 제작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최대한 돕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지?”는 취학 전 혈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으로, 책자가 필요한 혈우가족은 재단원 진료 시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www.kohem.org)의 혈우회원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교육 책자의 발간에 많은 도움을 준 일본 혈우병 환우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재가복지팀 9월 소식

청소년 수중 운동 교육 프로그램 진행

우리 환우들은 수영이나 수중운동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지부족과 사회성 부족 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중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중 운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증진시키고, 정확하며 안전한 운동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수영장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부산·경남지역 수중 운동 프로그램
 - 대 상 : 부산·경남지역 중학생 이상 환우 및 가족 참가인원 약 30~40명
 - 일 시 : 2006년 9월 24일(일) 10:00 ~ 12:00
 - 장 소 : 부산 사하구 구민체육센터(예정)
 - 내 용 : 아쿠아로빅 전문강사가 진행
- 서울·경기 지역 수중 운동 프로그램
 - 대 상 : 서울, 경기 지역 청소년 환우
 - 일 시 : 2006년 10월 15일(일)
 - 장 소 : 안양시 장애인 복지관 수영장
 - 내 용 : 수중운동을 이용한 게임의 형태로 타 기관의 전문 물리치료사 3인이 진행
 - 인 원 : 선착순 15명
 - 신 청 : 재가복지팀 사회복지사 김윤정 ☎ 02.3473.6100/내선321)

혈우 환우를 위한 운동 교실 진행

혈우 환우들은 어린 아동기부터 본인 스스로의 자조관리가 너무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환우들 스스로의 운동법이나 자조관리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환우들에게 운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 운동 교육을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운동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다른 환우들과의 운동에 대한 경험 교류와 유대강화를 맺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진행 : 물리치료실 권세진 실장
 - 설문지 및 신체활동 평가
 - 신체 검진: 관절 가동 범위, 근력 및 악력 검사
 - 혈우병과 운동 교육
 - 스트레칭 및 근력 강화 운동
 - 세라 밴드 운동
 - 발란스 운동
- 1차 : 대구지역 초등학생(10명 내외)
 - 9월 23일을 시작으로 10, 11월 4째 주 토요일 교육 및 집담회 실시
 - 참석한 환우들의 어머니들에게는 주사교육을 별도로 실시함.
- 2차 : 부산지역 청소년(10명 내외)
 -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3주간 주 1회 교육 및 집담회 실시
 - 교육장소 : 부산 코헬회 집
 - 참가신청 : 재가복지팀 김선경, 김진규 상담원

‘멘토’ 만나 마음 속 고민 나눠보세요

특 터놓고 말할 사람 없나요?

드라마 <대장금>의 장금이와 한 상궁, <동의보감>의 허준과 유의태,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 아브라함 링컨과 링컨의 학교 시절 교사 그래함, 영화 <파인딩 포레스터>의 고등학생 자말과 폴리처 수상 작가 포레스터.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즉 멘토와 멘티의 관계입니다. 그래함, 유의태, 설리반과 같은 멘토가 없었다면 링컨, 허준, 헬렌 켈러와 같은 인물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혈우 청소년들도 저마다 숨겨진 재능과 소질,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관심과 소질을 잘 파악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성향을 잘 알아 어려움이 닥쳐도 잘 극복하지만, 일부는 작은 고민들에도 쉽게 좌절합니다.

만약 현재 여러 가지 고민에 휩 쌓여 있고 앞날이 불투명해 괴로워하고 있는데, 옆에서 조언

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멘토의 필요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멘토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격려해주며,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도·조언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지원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멘토는 특히 지독한 입시지옥 속에서 공부기계가 돼야 하는 학교 환경과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더욱 절실하며, 혈우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민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의 고민을 하소연하고자 해도 믿고 도와줄만한 사람을 찾기 힘들 때 멘토는 캄캄한 동굴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교육-학업지도, 진로지도 등 개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

● ‘인생 선배’ 덕에 든든한 사춘기 =

정수철(가명·15·중3)군은 아빠, 엄마가 없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았다. 형편이 넉넉지 않기에 그는 풍족하게 뭔가를 누려본 적이 없다. 피자 한 판 마음 놓고 먹어본 적도,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실컷 놀아본 적도 없다. 그런 이유로 늘 의기소침하게 지냈던 그는 중학생이 되면서 거의 외톨이가 되었다. 초등학교 때 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적도 하위권으로 곤두박질쳤다. 자퇴를 할까, 가출을 할까 날마다 이런저런 고민에 정군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 갔다.

그러던 중 가끔 나가던 교회에서 만난 대

학생 형이 집으로 찾아왔다.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던 차에 그 형은 아버지 이상의 존재로 다가왔다. 밥을 사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를 해줬다. 주말엔 같이 산에도 가고, 놀이공원에도 가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했다.

정군은 “형도 나와 비슷하게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다. 한데 한 어른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했다고 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형의 등장으로 달라져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털어냈다. <타 신문 기사>

멘토와 멘티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멘토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멘토링의 개념은 참 좋지만, 문제는 어디서 멘토를 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주변 형이나 누나, 친척, 지인 등 가운데 멘토를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이나 대학, 복지기관 등에서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곳은 대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환우들은 혈우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재가복지팀에서는 우리 청소년 환우들을 대상으로 재단 직원들과 함께 1:1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모의 관심이 부족하고 타인에게도 고민을 털어놓기가 어려웠던 우리 혈우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멘티(청소년)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성인 혈우 환우들의 멘토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자 합니다.

멘티(청소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환우들을 위하여 멘토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 02-3473-6100, 내선 321번, 김윤정 사회복지사)

현장학습프로그램 ‘보며, 즐기며, 배우며’ 안내

재가복지팀에서는 9월 현장학습프로그램으로 ‘임진각 안보체험학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9월 24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임진각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혈우병으로 인하여 군대에 갈 수 없는 혈우환우들에게 임진각을 방문하여 제 3땅굴과 도라 전망대 등을 살펴보고 국가안보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

고자 합니다.

◎대상 : 초, 중, 고등학생 환우

◎일시 : 2006년 9월 24일(일) 10:00 ~ 19:00

◎장소 : 경기도 파주 임진각

◎내용 : 임진각 안보체험학습(제3땅굴, 도라전망대, 자유의 다리, 도라산역 등)

◎인원 : 선착순 15명

참가 비용은 재단에서 지원하며, 의원의 의료진이 함께 동행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18일까지 많은 분들의 신청바랍니다. 신청서는 한국혈우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재단의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02-3473-6100, 내선 311번, 정은석 상담원 ☎

알려드립니다

재단보 코헬지에 지난 2회 동안 안내해드렸던 ‘병영체험’은 해당부대의 사정상 무기 연기 되었습니다.

혈우인 여러분의 병영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과 함께 조국의 소중함과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 병영체험을 기획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으나, 군부대의 사정으로 최종 결정 단계에서 매번 무산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에게 사과드리며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준비하여 더 좋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 정신보건센터 안내

육체의 건강 만큼이나 중요한 ‘정신 건강’

최순일 | 중구정신보건센터 · 사회복지사

들어가며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곳 중 한 곳이 보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질병치료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더 갖는다면 우리들의 정신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구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바로 그곳입니다.

정신보건센터라 하여 어색하고 또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이념

정신보건센터는 일반시민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표적 소외계층인 정신 장애인들의 인권 존중과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하여 일반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증진사업과 정신 장애인들을 입원 또는 수용 위주로만 치료하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재활과정을 통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 내용

▶ 만성 정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사례관리 : 정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내소 상담을 실시합니다.

△주간재활 : 병원 퇴원 후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고립, 경제적 무능력과 정서적 퇴행,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이들에게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여러 전문가들(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 심리사)의 팀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간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재활 : 주간재활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일정 기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회원에게 직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며, 지역사회 내의 기업체와 협력하여 정신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의 목표에 맞는 직업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족교육 및 가족모임 :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족들이 정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른 지식과 이해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약물 및 증상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가족 간에 지지체계를 구성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정보 교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치매 어르신의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 예방 방문교육 및 기억력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치매로 진단을 받는 경우 집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치매 어르신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어르신 관리와 가족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학교보건사업**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와 부적응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학습장애 등 전반적인 행동 정서 문제, 인터넷 중독, 우울·불안 등의 정서문제, 정신질환 조기 진단 등) 정신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와 가족의 가족기능강화

혈우병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거나 심리적으로 지칠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서 건전한 가족기능의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 및 부모의 바른 역할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원의 보호 및 양육지원, 가족원의 유대강화 및 사회화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과의 연계,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랜 병상생활로 인해 해체의 우려가 있거나 해체된 가정의 재통합을 위한 심리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일탈 가족원 복귀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후지원, 특수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연계 통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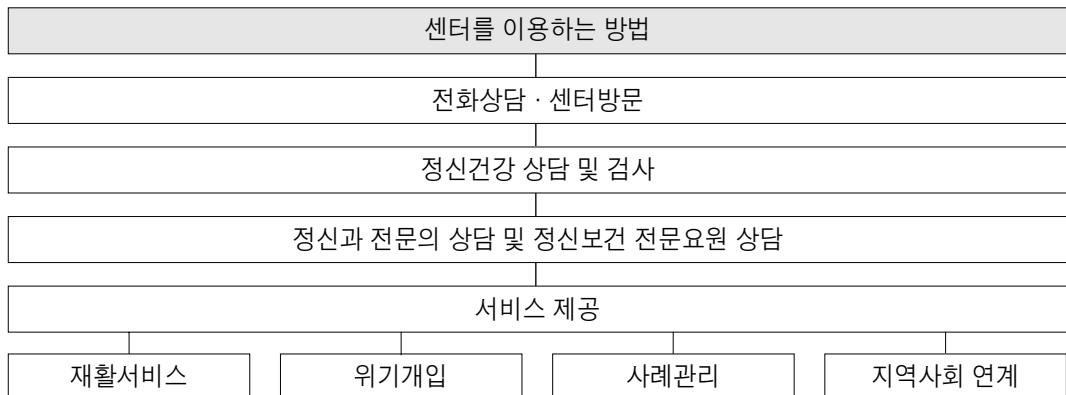
▶ **혈우환우 및 가족상담**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하여 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 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줍니다.

▶ **자원 연결을 통한 지지체계 형성**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과 관련하여 복지관과 동사무소, 해당 학교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정신보건센터 이용절차




마련하고 복지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연결해 줌으로써 이들 가정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지지망을 형성해 줍니다.

▶ 서비스 제공 연결

참여 아동 중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을 가진 가정이 많기에 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물품지급, 밀반찬 지급 등) 제공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데 혈우 가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오며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얻고, 정신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위에 정신 장애인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이분들이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실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연락처 및 관련기관 안내

| 서울지역정신보건센터 (www.seoulmind.net) | |
|--------------------------------|-------------------|
| 자살/위기 등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
| 인터넷 실시간 상담 | www.suicide.or.kr |
| 서울시 광역 정신보건센터 | 3444-9934 |
|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 정신보건센터 | 2231-2188 |
| 강남구 정신보건센터 | 2236-0344 |
| 강북 정신보건센터 | 985-0222 |
| 강서 정신보건센터 | 2657-0190 |
|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 452-1563 |
| 노원 정신보건센터 | 950-4346 |
| 동작 정신보건센터 | 820-1454 |
|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 337-2176 |
| 성동 정신건강센터 | 2298-1080 |
| 성북 정신건강센터 | 969-8961 |
| 송파 정신보건센터 | 421-5871 |
| 중랑구 정신보건센터 | 490-3805 |
| 중구 정신보건센터 | 2236-6606 |
| 도봉구 정신건강센터 | 900-5783 |
|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 2630-0349 |

| 경기·인천지역 정신보건센터 (www.mentalhealth.or.kr) | | |
|---|----------------|--------------|
| 경기 (031) |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 968-2333 |
| | 과천시 정신보건센터 | 02-504-4440 |
| |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 762-8728 |
| | 구리시 정신보건센터 | 550-2007 |
| |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 461-1771 |
| | 김포시 정신보건센터 | 998-4005 |
| |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 592-5892 |
| | 동두천시 정신보건센터 | 863-3632 |
| |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 032-654-4024 |
| |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 247-0888 |
| | 하남시 정신보건센터 | 790-6558 |
| | 이천시 정신보건센터 | 637-2330 |
| |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 754-3220 |
| |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 316-6661 |
| | 안산시 정신보건센터 | 411-7574 |
| |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 469-2989 |
| | 연천군 정신보건센터 | 830-2131 |
| | 오산시 어린이 정신건강센터 | 374-8680 |
| | 용인시 정신보건센터 | 324-9321 |
| |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 458-0682 |
|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 828-4567 | |
| 평택시 정신보건센터 | 658-9818 | |
|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 352-0175 | |
| 인 천 (032) | 인천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 560-5006 |
| | 인천 중구 정신보건센터 | 760-7696 |

| 각 지방 별 정신보건센터 | | |
|---------------|--------------|----------|
| 부산 (051) | 금정구 정신보건센터 | 583-2600 |
|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센터 | 242-2575 |
| | 진구 정신보건센터 | 638-2772 |
| | 북구 정신보건센터 | 309-4972 |
| 광 주 (062) | 동구 정신보건센터 | 220-0468 |
| | 서구 정신보건센터 | 370-2512 |
| | 북구 정신보건센터 | 521-4000 |
| 대 구 (053) | 서구 정신보건센터 | 564-2595 |
| | 수정구 정신보건센터 | 765-5860 |
| | 북구 정신보건센터 | 353-3631 |
| | 달서구 정신보건센터 | 630-0425 |
| 대 전 (042) | 서구 정신보건센터 | 483-7942 |
| | 대덕구 정신보건센터 | 931-1672 |
| 울 산 (052) | 남구 정신보건센터 | 227-1116 |
| | 동구 정신보건센터 | 209-1005 |

멘토링 프로그램이란?

김 윤 정 | 재가복지팀 사회복지사

멘토는 고대 그리스 신화 오딧세이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그리스의 왕인 오딧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멘토(Mentor)였습니다. 멘토는 오딧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10여 년 동안, 왕자의 친구, 교사, 상담자이자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그를 잘 돌보아주었다. 이후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멘토는 지혜롭고 믿을만한 조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멘토의 역할은 조언자, 후견인, 인도자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멘토란 현명하고 믿을 수 있는 조언자로서 단순한 상담자가 아닌 조언을 통해 멘티(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래된 '멘토링(mentoring)'이란 성인과 청소년이 한 쌍을 이루어 신뢰를 기반으로 일대일 관계를 맺는 것, 혹은 그 관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인 성인(멘토) 1명과 청소년(멘티) 1명이 1:1로 한 쌍을 이루어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 정기적 또는 수시로 멘토가 멘티의 욕구나 관심, 고민에 초점을 두고 멘티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 직업,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상담하고 돕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19세기 후반 불우한 아동

을 위한 역할 모델인 "친근한 방문자"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04년 어네스트 K. 쿨터(Ernest K Coulter)는 사회화, 지도, 긍정적인 성인 역할 모델의 제공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1:1의 결연관계를 통한 정서적 원조를 보내는 Big Brother라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확대되기 시작한 Big Brother/Big Sister(BB/BS)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현재까지 전국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JUMP(The Juvenile Mentoring Program) 프로그램은 미국 청소년 비행예방 사무국(OJJDP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에서 관리하는 미 연방 전체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서로 간 관계가 없던 개인들을 1:1로 연결하여 장기간의 정규적인 관계를 유지함을 통해 정서적 지지, 자아관의 확립 등의 원조를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면서 1974년 발효된 미국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방지법(JJDP A: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이 1992년 미 의회에서 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때 멘토링이라는 파트가 공식적으로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방지법에 첨가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국 선명회 등의 무상원조기구에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후원자와

의 1:1 결연 후원이라는 형태로 결연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정서적 결연이 아닌 지속적인 경제적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결연이었으며, 이러한 결연 사업을 통해 경우에 따라 경제적 후원 외에 후원 대상자-후원자 간의 만남이 지속되어 요보호 아동, 청소년의 보호와 지지를 위한 결연관계의 유용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1989년에 전국 12개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보호관찰소가 설치된 이후, 보호관찰대상 소년범에게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이 지정되어 지도, 감독이 시행되었으나, 역시 정서적 결연이라기보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개별 감독이 그 목적이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와 범죄예방위원과의 개별적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호관찰관이 범죄예방위원의 지도, 감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렇듯 멘토링 프로그램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공식적 멘토링이며, 또 하나는 계획된 공식적 멘토링입니다.

비공식적 멘토링이란 대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청소년, 선후배 사이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1:1 관계입니다. 이러한 비공식적 멘토링 관계는 서로 멘토링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여 멘토는 멘티의 역할 모델이 되어 주고, 적절한 조언이나 기술을 전달해 줍니다. 비공식적 멘토링은 멘티가 나름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멘토링의 적절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멘토링의 효과가 멘토 개인의 역량 자체에만 의존하게 되는 한계를 가집니

다.


공식적 멘토링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역할 모델(멘토)을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욕구를 측정하여 목적과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훈련된 멘토와의 1:1 관계를 맺게 해 주는 것입니다.

즉, 멘토링이란 경험이 많은 윗사람, 즉 멘토가 경험이 적은 아랫사람, 즉 멘티로 하여금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 그의 성장과 발달을 최대한 돕기 위해, 1:1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친구, 스승, 모범인물, 안내자, 조언자, 상담자)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에서 구조화된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1997년, 서울시 교육청의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기획하여 실시한 학교 사회사업 시범 프로젝트에서 서울시 3개 중·고등학교에 파견한 학교사회사업가를 통해 학교 내의 저소득층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 요보호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직장인과 1:1로 결연하여 정서적 지지를 위한 서비스를 실시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그 효시였으며, 이후 각 대학의 부설 복지관 및 학생생활연구소의 주도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대학 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전북대학교 부설 지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직자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학습지도 및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담쟁이학교'의 경우, 멘토와 멘티의 결연관계를 통해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1998년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에서 서울동부지청 보호관찰소와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기소 유예 대상 청소년을 위한 대학 기반 선도 멘토 프로그램이 계기가 되어 1999년 사단법인 한국청년연합회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멘토들과의 정서적 결연을 통한 재범 예방 및 사회 적응 원조를 목표로 실시된 '좋은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제1기 좋은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9명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3개월간의 멘토와의 개별 상담, 멘토-멘티가 한 조를 이뤄 참여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적응과 태도 개선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여, 멘토링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한 청소년 8명 전원이 보호관찰 재심사에서 보호관찰처분 가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각 대학 부설 복지관 및 학생생활연구소와 전국 지방 검찰청의 공동

주관으로 기획되어 실시되고 있거나(서울, 광주 지방검찰청), 멘토-멘티 모집, 멘티 교육 등의 준비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과 대학생 및 기업인들이 1:1의 정서적 결연관계를 통해 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을 위한 지역보호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멘티를 둔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멘토와 멘티를 모집합니다

▶멘토(성인) 지원자격

- 21세 이상의, 청소년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
- 월 2회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분
- 신청자는 개별 면담을 통해 선발합니다.

▶멘티(청소년) 지원자격

-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
-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학습부진, 진로문제, 복학 및 적응문제 등)
-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따돌림, 폭력 등)
-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혼, 무관심, 폭력 등)
-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지지기반이 부족하고, 역할모델이 필요한 청소년

▶프로그램 일정

- 모집기간 : 2006년 9월 11일 ~ 10월 10일
- 교 육 : 2006년 10월 27일 (예정)
- 멘토와 멘티의 첫 만남 : 11월 첫 주 중
- 활 동 : 2006년 11월 1일 ~ 2007년 5월 중순
멘토는 멘티(청소년)와 월 2회 만남
- 종 결 식 : 2007년 5월 중순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멘토 신청서(성인), 멘티 신청서(청소년)
(신청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재가복지팀 김윤정 사회복지사
(☎ 02-3473-6100, 내선 321번)

NMO 트레이닝의 영향 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

세계혈우연맹 NMO 트레이닝, 2004년 10월 태국

어떤 조직이 노쇠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적인 새로운 인재의 채용이 필요하다. 세계혈우연맹의 NMO 트레이닝과 청년 캠프 (Youth camp)은 바로 ‘활동적인 새로운 인재’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들 행사가 과연 효과적일까? 자칫 1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세계혈우연맹이 제시한 6개월 간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한다. 지난 2004년에 있었던 세계혈우연맹의 NMO 트레이닝에 대한 보고서이다.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좋을 것이다. <편집자註>

세계 NMO 트레이닝이 준 영향에 대한 평가가 세계혈우연맹 총회 이후 6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5년 5월 초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된 전자우편이 116명의 참가자들에게 발송되었다. 이 중 81명에게서 답신이 왔다(회신율 70%).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같은 국가 분류 기준은 세계은행의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에 근거, 2003년의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나누었다(미화 1만불 이하는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하였다.) 18~30세의 참가자는 ‘청년’ 층으로 분류하였다.

평가의 목적은 △NMO 트레이닝이 각국 참가자와 그들의 일에 끼친 영향 △정보와 기술 공유를 통한 참가자의 조직 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영향 △정책과 제도, 구조 혹은 과정 개발이나 평가를 통한 조직에 대한 영향 등을 알아보는 데 두었다.

전반적인 평가

거의 모든 응답자(96%)가 NMO 트레이닝 이후

6개월 안에 자신의 혈우조직 안에서 일을 하는데 NMO 트레이닝의 영향을 느꼈다. 이들은 독자적인 NMO나 세계 혈우사회에 대한 자신의 참여도를 높이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트레이닝의 영향을 받았다.

응답자 중 대다수(69%~88%)는 6개의 주제가 자신들의 조직에 “매우 중요”하였다고 답했다. ‘청년’ 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동료들과 공유하였다. 공유 방식으로는 주로 회의(65~82%), 자유토론(39~57%) 등이었다. 몇몇 참가자는 이메일을 통해서나 워크숍 개최(8~25%), 소식지나 웹사이트, 기타 다른 형태의 책자 발간형식(8~28%) 등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오직 한 명만이 유용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다른 이들과의 정보 공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많은 의견은 이런 세계적인 모임에서의 관계 형성과 비공식적 네트워킹의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그 외의 다른 의견들은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회의에서 상호 신뢰 하에 함께



▲ 200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NMO 트레이닝 모습

공유하는 관점들이 증가하는 경험과 같은 도드라진 영향으로 귀착되는 것들에 관한 것들이었다. 또 다른 의견들 중에는 트레이닝 기간 동안 열린 세계혈우연맹 총재 선출을 통해서 얻은 것이 많았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우리는 새 총재 선출을 위한 선거 (캠페인을 참관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 일이기 때문이죠. 이 이벤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NMO 회의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있는 정책과 진행 과정 등을 손보거나 확정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온 참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트레이닝 행사의 직접적인 결과로 10개국에서 새로운 환자 등록사업이 시작되었고 31개국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26개국에서는 자국 내 조직의 규정 개정과 개발, 조직 고유의 특징이 확고히 정립되었다.

26개국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지도부 변화에 대비한 시스템이나 대처과정이 개선되었다. 25개

국에서는 정서적 지지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다른 변화들로는 트레이닝 이벤트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외에 참가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많은 일들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제안을 계획하고 결과를 얻기에는 6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가 더욱 기대되었다.

NMO 트레이닝 이후의 변화 (설문응답)

- 조직적인 정책과 규정에 대한 숙고와 보다 나은 NMO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상세지침 수립
- 정서적 건강 문제를 정책적으로 포함하기 시작
- 보건부 의약품 도매공사의 최고 구매자와 회의에서 얻은 의견 토론회
- 새로운 의약품 정책과 규정 개발
- 조직은 보다 더 투명하게, 후원 제약업체와의 동등한 관계 수립
- 규정 개발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지도부 훈련 실행 계획. 지역 혈우병 그룹에 대한 두 번의 강좌 개최, 혈우병 상담 제공을 위한 유선 서


비스 시작

- 의약품 전략 개발, 국가 단위의 혈우병 등록 기관과 혈우병 치료센터, NMO 간의 정보 교환 증가
- 언론에 대한 접근과 압력 단체로의 역할 증대, 공공 행정관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결정 과정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
- 다른 도시에 새로운 지부 설립 시도, 젊은 환자를 모으고 그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도록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지원자 유도
- 현재 등록 환자의 85%에 이르는 신규 등록 환자의 증가
- 자원봉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작. 새로운 자료 수집 도구와 병원과 건강 센터에 있는 신규 환자에게 배부할 혈우병 책자 제작
- 언론 매체에 근무하는 젊은 회원의 도움으로 보도 자료와 언론 관계 개선
- 캠프를 포함한 세계혈우병의 날 행사에 NMO 트레이닝에 참석하였던 청년을 조직의 대표로 파견하여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음
- 단체의 모든 회원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개발하는 위원회의 구성
- 보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등록사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그 결과 위원회는 보건부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 편지를 발송하여 국가 단위의 정보를 모을 수 있었음
- 등록사업의 개발을 위한 전 단계로 자료 수집 양식을 개발하였음
- 혈우병 치료센터에 컴퓨터와 개인기록을 합친 등록 자료를 모았으며, 이를 통해 회원을 보다 끌어들이는 업무가 향상되었음
- 약품 정책, 자료 등록 체계, 포괄적인 확장 서비스 등 많은 정책, 체계, (업무처리)과정을 재검토하였음

- 혈우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지역 병원과 모든 환자단체 지부를 통한 등록 자료 수집 기능을 강화하였음
- 청년위원회를 정식화하고 청년회원을 채용하였음
- 제약회사에게 그들과의 협력관계의 한계와 그들이 어떻게 NMO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음
- 국가적인 등록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약품과 관련된 많은 주제에 대해 보건부 장관과 사무관들과 면담을 하면서 조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
- 트레이닝을 받기 전 조직이 활동적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반성하며 재조직화를 하고 있음
- 약품 정책을 명문화하는 과정을 진행 중임
- 다른 조직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이런 관심은 정책이 새로 올려질 때 매우 유용.
- 정보 처리에 대한 강좌를 들은 후 7.2% 이상 환자 발굴

결론

2004년 세계 NMO 트레이닝의 6개월간 영향 평가는 80명 응답자의 대다수가 3일간의 트레이닝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였고 자신이 배운 것을 자국에 돌아가 동료들과 함께 응용한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트레이닝은 대부분의 참가자에게 조직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배가시키거나 유지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정책, 시스템, 혹은 절차 등의 개선, 개발의 촉매가 되었다. 

“아빠, 힘내세요.”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김종현 환우

종현이는 요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꼬마가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몰라도, 요즘 종현이의 마음 한 구석이 무거운 것을 느낍니다. 여동생과 함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갖은 재롱을 보이곤 하지만 종현이와 동생의 노력에도 어른들의 얼굴은 쉽게 퍼지질 않습니다.

바로 비 때문입니다.

남들은 비가 오면 시원해서 좋다고 하지만, 에어컨은 커녕 이제는 그 흔한 선풍기도 망가져 버린 종현이네는 그래도 비가 원망스럽습니다.

바로 두 달 전 오후에, 종현이네는 집의 처마 밑까지 밀려오는 빗물에 입은 옷 그래도 집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며칠을 이웃집에서 지내면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당뇨로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온통 흙탕물 범벅이 된 집이며 가재도구에 할머니며, 어머니는 아예 말을 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어렵게 모아놓은 고물들이 다 떠내려가고 일하시는데 필요한 기계도 다 망가졌다며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려 종현이가 아버지 일을 도우려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방에서 할머니 되시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번 병원에서 받은 약이 다 떨어지고, 고물을 모으는데 쓰던 트럭도 물에 잠겨 망가졌는데 행여



종현이에게 출혈이라도 있으면 큰일이라고 말입니다. 차도 없고 돈도 없는데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에겐 빗물에 떠내려간 고물들보다도, 흙탕물에 범벅이 되어버린 집보다도 종현이와 여동생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어머니가 토닥이며 말씀하셨지만 종현이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에 파인 주름에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는 아프시기 전에는 산에서 일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셨다고 하는데 아프시곤 난 후 부터는 힘든 일을 하실 수 없어 마을에서 땅을 얻어 집을 세우고 고물을 주워 모아 파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오신 어머니를 만나 종현이와 여동생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차들이 다니는 뚝 길과 지붕의 높이가 같을 정도로 낮은 곳에 있어 해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어김없이 물에 잠기곤 했습니다. 종현이



는 작년에도 비가 와서 댄 집에서 자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아버지는 '영차' 하고 힘을 내서 다시 집을 고치고, 물이 휩쓸고간 물건들도 다시 모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니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계시고,

아버지와 말씀이 잘 통하지 않는 어머니는 더욱 안절부절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온 아저씨, 아줌마들이 종현이네 집에 도배와 장판을 다시 해 주었습니다. 물론 집 전체를 한 것은 아니지만 흙탕물 흔적을 보는 것에 비하면 종현이네 집이 훨씬 더 환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도 모처럼 환해 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도와주신 분들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시며, 집 주위의 들꽃 한 다발을 꺾어서 드렸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들도 그 꽃을 보고는 많이 좋아 하셨습니다.

종현이는 이제 아파도, 주사를 맞을 때에도 울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튼튼하게 자라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등 뒤에서 조그맣게 속삭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김종현 환우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혈우병A 중증 환우입니다.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종현이네는 지난 7월에 내린 집중호우 때 집이 물에 잠기는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 수해로 집의 모든 가재도구가 못쓰게 되고, 종현이 부모님이 그동안 힘들게 모은 고철들이 모두 떠내려가고, 작업장비들이 망가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해 복구비가 113만원이 지원된다고 하지만 이로써는 집을 고치는 데에 쓰기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혈우가족 이야기'를 통해 소개된 혈우가족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정이 종현이 가족에게

도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단의 후원계좌나 종현이 아버지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재단의 후원계좌로 보내실 때에는 보내시는 이름과 함께 '김종현'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을 통해 후원하시면 연말정산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 종현 아버지 계좌번호 : 313010-51075588 (농협, 예금주 : 김영석)
- 한국혈우재단 후원 계좌번호 : 880-023518-13-105 (우리은행, 예금주 : 한국혈우재단)

42일 간의 꿈, 희망이 되자

이승민 | 혈우인

“태국의 코끼리는 작은 나무에 연결된 가는 줄에 묶여서 길러지고 있는데 그 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줄을 끊을 힘이 충분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끊지 않고 탈출할 수 없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 줄에 얽매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얽매어 있는 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라면 과연 나의 그 줄은 무엇인가 생각해 그 줄을 끊어 버리고 그 가슴 벅찬 일에 열정을 다 하십시오.”

캠퍼스 한 작은 강의실에서 열렸던 한비아 씨의 강연에 참석하여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삶에 지쳐있던 내게, 지금 어디로 가야할지 내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있을 때에, 그 강연은 내 마음속 깊이 잠든 ‘열정’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했고, ‘과연 내 발을 묶고 있는 그 ‘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이와 관련된 고민으로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한창 학기 중이었고 반복되는 강의와 전공 공부에 내 주변에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다 선배의 유럽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순간 나의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색다른 세계, 독특한 문화, 내 일상적인 공간을 벗어난 곳, 한번쯤은 가고 싶었던 곳 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곳, 어디 먼 곳으로 떠나기에는 나에게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그 ‘끈’들을 풀고 싶은 욕망... 한비아 씨의 강연이 오버랩되면서 내 가슴은 뛰고 있었고 그날부터 나의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은 벌써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 방학 때 꼭 가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우선 부모님께 유럽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일 동안 잤다 올 예정이냐?”

“한 번 가는데 한 달은 너무 짧고, 한 40일 정도는 잤다 와야지 비행기 값 좀 벌지 않을까요?”

“...”

“친구 몇 명이랑 가느냐?”

“혼자 갈 생각입니다.”

어이없어하시는 부모님 표정, 아버지는 여럿이서 가는 것도 위험한데 혼자 어떻게 잤다 올 것이며, 짧게 잤다 오고 다음 기회에 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에 친구와 함께한다면 그 친구만이 나의 친구이지만 여행을 혼자 간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또 어설픈 짧은 ‘관광’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번쯤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여행’을 잤다 오고 싶어서 혼자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님이 없다고, 허락은 받았지만 건강이라는 남은 문제가 있었기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응고인자유지요법과 꾸준히 해온 운동으로 효과를 보고 있었던 나는 여행 중에도 응고인자유지요법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본격적인 여행 준비에 임했습니다.

5월 1일, 그 날 비행기 표를 사고 나서 출국하기 전 2개월간은 예전과 달리 삶이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고, 그 새로운 곳을 생각하며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것을 통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즐거운 날들이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책이나 TV에서만 보던 건물, 예술 작품, 거리, 페스티벌 등을 얼마 후면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은 날들이 없었습니다.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라 출국 전날까지 ‘잘되겠지, 잘되겠지, 사람 사는 곳인데 뭐가 다를려구...’ 했었지만 막상 전날이 되고 그 다음날 한

국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 이제야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혼자 여행 기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러나 더 큰 세상을 보고 42일이 지나면 분명 ‘나’가 바뀌어 질 모습을 생각하니 이 여행 기간 동안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열린 마음을 가지자는 다짐과 함께 이 잊지 못할 유럽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7월 6일,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42일간 영국으로 시작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로 가는 나의 여행,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나에게 대한 의문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이 되었고,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한다!’는 말만이 나에게 필요한 힘이었고 용기였습니다. 지금도 7월 6일에서 8월 16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기억력이 좋지 않은 나지만 42일 동안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것을 봤고 어떤 것을 먹었으며 누구를 만났다 등등 빠짐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었고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 이런 저런 많은 에피소드가 무수히 있지만 그 중 매력적이었고 우리 환우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경험은 스위스에서의 추억들입니다.

스위스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유명한 박물관이나 건물에 들어가 무엇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아직 오염되지 않은 쾌적한 자연경관을 보러가는 곳입니다. 산과 물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서는 가장 맞는 나라입니다. 융프라우호(Jungfrauoch)를 비롯한 거대한 산들과 바닥까지 보이는 맑은 호수, 어디에서든 먹을 수 있는 알프스의 눈이 녹아내린 물. 여행 중반에 다다르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나에게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과 산만 바라봐도 모든 피로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보다 더 높은 티틀리스(Titlis)라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이는 해발 3020m. 태어나 가장 높은 곳을 올라가봤습니다. 한 여름인 데도 불구하고 정상에는 하얀 눈이 있었습니다. 후르츠 칵테일을 가져가서 빙수 해먹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들이 정도로 눈이 깨끗했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물통에다 그 눈을 넣어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그 높은 봉우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는 알프스 산맥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이 그 산맥들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산맥 앞에서 보잘 것 없이 작은 나를 보니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 산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이 되지만 마음으로 본다면 그 산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명언을 생각하며 앞으로 무엇을 해도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티틀리스의 하루는 지나갔습니다.

스위스에서 또 하나 값진 추억은 하늘을 날았던 것입니다. 워낙 기반 시설이 잘되어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패러글라이딩이나 스카이다이빙 등의 레포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한번쯤 해보고 싶었던 패러글라이딩이라 큰 맘 먹고 신청을 하고 여러 친구들과 산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 낙하산을 매고 비탈진 산 중턱에서 스위스 파일럿이 한국어로 “뛰어!, 뛰어!”를 외치자 저는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순간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그 시간이 쭉 이어지더니 마침내 저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스위스의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멋진 풍경도 일품이지만 그 하늘을 날자고 마음을 먹었을 때의 다짐은 잊지 못합니다. 그 다짐을 통해 그동안 내 발에 묶여 있던 나머지 ‘끈’들을 그 이름 모를 산 한 자리에 남겨 놓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통해 이 글을 적으며 우리 환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글 처음에 적었던 이야기처럼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끈’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환우들은 혈우병 그 자체가 우리에게 ‘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끈은 그 병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하든 몸을 움츠리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분명 제약은 따를 것입니다. 그 제약은 단지 제약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내 의지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약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제약으로 나의 뜻을 굽히고 그 일을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몸의 지배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유럽을 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몸을 위해 수영과 적절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내적으로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꾸준히 키워갔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슴을 뜨겁게 두근거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어느 순간 그것을 해낸 자기 자신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미약하나마 ‘희망’이 되길 원하면서 이 글을 마쳐볼까 합니다. 

88호 정답 및 당첨자

모두 열여섯 분이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독자의 소리’에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 좋은 코헨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혈우재단에서는 여러분의 수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마다 70여명의 새로운 혈우가족이 재단에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는 혈우병을 극복한 여러 혈우가족의 이야기들이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기는 재단보인 ‘코헨’지를 통해 소개되고, 나중에 책으로 엮어 신환자 여러분께 힘이 되도록 전달될 것입니다.

바로 혈우병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 경험들이 또 다른 ‘피로 맺은 벗’인 다른 혈우가족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하여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 | | | | | | |
|---|---|---|---|---|---|---|---|
| 절 | | 길 | 동 | 무 | | | 파 |
| 차 | 일 | 피 | 일 | | 진 | 퇴 | 양 |
| 탁 | | 아 | | 오 | | 비 | 곡 |
| 마 | 구 | | 오 | 십 | 견 | | 사 |
| | 천 | 마 | | 보 | | 회 | 춘 |
| 시 | 동 | | 표 | 백 | 제 | | 기 |
| 종 | | 동 | | 보 | | 토 | 목 |
| 일 | 목 | 요 | 연 | | 가 | 렵 | 주 |
| 관 | | 꽃 | 다 | 지 | | | 이 |

상품을 받으실 쿼즈 정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민(안양시 동안구), 남경훈(서울시 서대문구), 남용우(서울시 강서구), 박종식(충남 공주시), 성태영(대전시 대덕구), 염윤태(광주시 동구), 이동구(안양시 동안구), 최정락(경기도 이천시), 한영웅(서울시 노원구) - 이상 9명, 가나다 順

퍼즐 맞추기 ...

‘코헬’ 지에 동봉한 엽서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 전하고 싶었던 말, 생각나는 이야기 등을 보내주시면 ‘코헬’ 지에 게재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2006년 10월 10일까지 재단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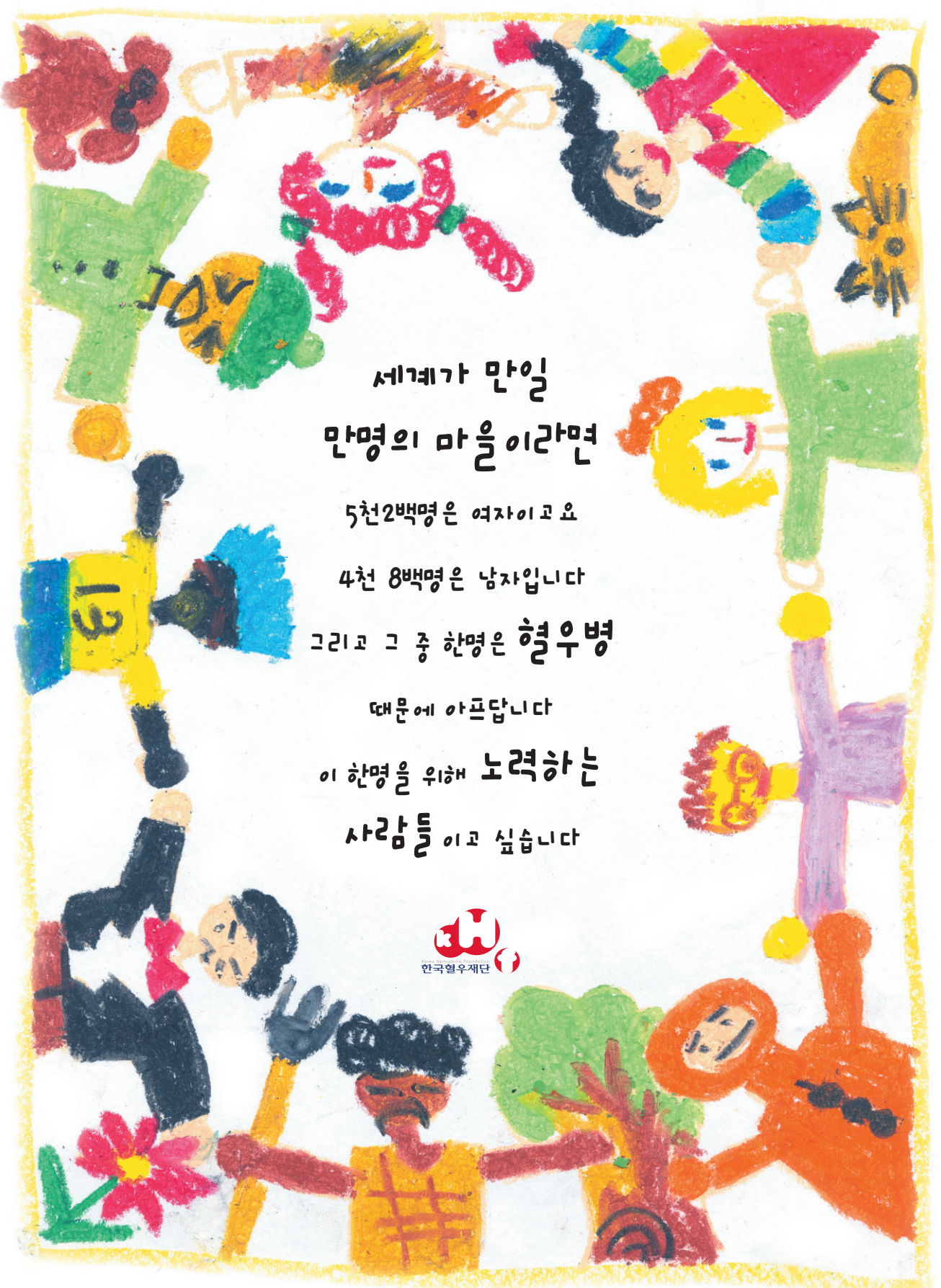
| | | | | | | | | |
|----|----|----|----|----|----|----|----|----|
| 1 | 2 | | 3 | | 4 | | 5 | |
| | | | 6 | 7 | | | | |
| 8 | | 9 | | | | 10 | | 11 |
| | | 12 | 13 | | 14 | | | |
| | | | 15 | | | | | |
| 16 | | 17 | | | 18 | 19 | | 20 |
| 21 | 22 | | | 23 | | 24 | 25 | |
| | | | 26 | | 27 | | | |
| 28 | | | | | 29 | | | |

... 가로 문제

1. 풀을 두드려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으로, 을(乙)을 징계하여 갑(甲)을 깨우침을 비유하는 말. 중국 당나라의 단성식의 수필집 ‘유양잡조(酉陽雜俎)’에 나오는 이야기.
4.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으로,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잘 찾지 못함을 이르는 말.
6. 사람이나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 동물. 집먼지○○○는 거미과에 속하는 것으로 아토피,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8.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작은 천.
10. 모기를 막으려고 치는 장막.
12. 약술. 또는 ‘맑은술’을 달리 이르거나 ‘술’을 점잖게 이르는 말.
14. 다른 물건이 달거나 묻어서 생긴 자리. 또는 어떤 것에 의하여 원래의 상태가 달라진 흔적.
15. 길쭉한 토막, 상자, 구덩이 따위의 양쪽 머리 면. 또는 길쭉한 물건의 양 끝에 대는 것.
17. 전기의 힘으로 밝은 빛을 내는 등. 흔히 백열전기등을 이름.
18.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또는 그렇게 먹는 일.
21. 한 생물체 안에 여러 개의 세포가 있는 것. 최근 개봉한 영화로 ‘○○○소녀’가 있습니다.
24. 미리내.
26. 탄성 고무로 만든 신.
28.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공자가 제자 안회를 평하면서 한 말로 유명합니다.
29.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음.

... 세로 문제

2.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익힐 때의 그 처음 단계나 수준에 있는 사람.
3.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
4.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된다.
5. 쇠고기 따위의 살코기를 저며 양념하여 재었다가 불에 구운 음식. 또는 그 고기.
7. 나무나 금속에 구멍을 뚫는 공구.
8. 은혜를 갚음. ‘結草○○’
9. 때를 정하여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10. 자기가 태어난 나라. 흔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가리킬 때에 쓰는 말임.
11.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아 두거나 담그는 독.
13. 무엇이 언뜻언뜻 빨리 지나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본래는 등(燈)의 하나.
14.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16. 쓸데없이 말수가 많음. 또는 그런 말.
17. 장수가 입던 긴 웃옷.
19. ‘ㄴ’
20. 옥수수의 사촌격. 열매는 곡식이나 엿, 과자, 술, 떡 따위의 원료로 쓰고 줄기는 비를 만들거나 건축재로 쓴다. 중국에서 이것으로 담은 술을 ‘고량주(高粱酒)’라고 함.
22. 왕세자의 아내. 드라마 ‘궁’에서 윤은혜의 역할이 이것이었습니다.
23.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25. 최근 경기도 광릉에서 곤충 중 유일한 천연기념물이 ‘장수○○○’가 발견되었습니다.
26. 평균 해수면 따위를 0으로 하여 측정한 대상 물체의 높이.
27.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세계가 만일
만명의 마을 이라면

5천2백명은 여자이고요

4천 8백명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한명은 **혈우병**

때문에 아프답니다

이 한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싶습니다

